

갈라디아서

Chapter 3

Shall we turn now in our Bibles to Galatians chapter three. Background: Paul the apostle had been in the area of Galatia. Galatia was a general area like a county or a state. It was not a city. There were many churches established there. After Paul's departure, other teachers came in declaring that the people could not be saved by a simple faith in Jesus Christ, but must also to that faith add the obedience to the law and the rituals of the law of circumcision. And many of the people in those churches that were brought to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rough Paul's preaching were taken in by these other teachers that followed Paul, and so a division developed among the brethren there in that area.

갈라디아서 3 장을 다 같이 펴까요.

배경: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갈라디아는 보통 주나 도와 같은 곳이었지만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 다른 선생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그 믿음에 율법의 순종과 할례법의 의식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법을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바울을 따랐던 그곳 여러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선생들에게 속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 사이에 분열이 발생했습니다.

These false teachers that had come in had spoken against Paul's authority as an apostle. And they were actually advocating the necessity of proselytizing into Judaism in order to be saved. Keeping of the law and a righteousness which is predicated upon following or observing these particular rules. So, Paul at the end of chapter two said, "I do not frustrate the grace of God: for if righteousness could come by the law, then Christ is dead in vain" (Galatians 2:21). Great powerful words, but very true words.

그곳에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은 사도로서의 바울의 권위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구원받으려면 유대교로 개종해야 되는 필요성을 주장 하였으며 율법을 지키는 것과 이러한 규칙을 따르거나 지키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장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21). 굉장히 힘 있는 발언이지만 대단히 진실된 발언입니다.

You see, if I could become righteous by keeping a set of rules, then Jesus would not have to die. The fact that Jesus did die declares that no man can be

righteous by his own effort or by his own works. God has established a basis for righteousness, but it is not upon works; it's not upon obedience to the law, but it is upon our faith in Jesus Christ. So Paul then opens chapter three,

만약 내가 어떤 관에 박힌 법을 지켜서 의로워 질수 있다면 예수께서 죽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으셨다는 사실은 어떤 사람도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선행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의를 위한 기초를 설정하셨으나 선행이나 율법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삼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O foolish Galatians, who hath bewitched you, that ye should not obey the truth, before whose eyes Jesus Christ hath been evidently set forth, crucified among you? This only would I learn of you, Received ye the Spirit by the works of the law, or by the hearing of faith? Are ye so foolish? having begun in the Spirit, are ye now made perfect by the flesh? (3:1-3)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3:1-3)

So, Paul takes them back to the very beginning of their salvation, when they first believed in Jesus Christ, and through their faith in Jesus Christ were accounted righteous before God, before they had done any works at all, God accounted them righteous. Now someone has come along and said, "If you want to really be righteous, then you can't be doing that. If you want to really be righteous, then you've got to be doing this." And they started establishing sort of rules for righteousness, which we are so often prone to do. Now, if you will read ten chapters of the Bible every day, and read a morning devotional, and spend a half hour in prayer, surely you will be much more righteous than the person who doesn't do those things. You see, we're prone to put on that kind of a addition to a person's faith.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예수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믿음으로 받은 그들의 구원의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어떤 종류의 선행도 행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의로워 지고 싶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의로워 지고 싶으면 여러분이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종류의 의로워지기 위한 규칙을 세워놓기 시작합니다. 규칙을 세우는 것은 우리에게도 자주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 열장씩 읽고 그리고 아침 명상의 글을 읽고 반 시간씩 기도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보다 분명히 훨씬 더 의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신앙에 그런것들을 덧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By the works of the law, no flesh can be justified” in the eyes of God (Galatians 2:16). If we could become righteous by obeying the law, any law, any set of rules, then Christ is dead in vain. And so the Galatians were taken in. They were bewitched by the teaching. It sounded so reasonable. But Paul then said, “Did you receive the Spirit by the works of the law, or by the hearing of faith?” Now it’s a rhetorical question, because the obvious answer is that they received the Spirit by faith. Now, this epistle to the Galatians is important, because there is, it seems, even to the present time, a great tendency to turn towards works as a basis of my relationship with God. And that’s always a dangerous basis for your relationship with God, because our works are not always approved, even by ourselves.

하나님의 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16). 만약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거나 규칙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수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인 들은 속았고 그들은 가르침에 매혹되었습니다. 듣기에 매우 합당합니다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것은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명백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반을 행위에 돌리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우 위험한 기반이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는 심지어 우리 자신들에게도 받아드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When I was a child growing up in a Pentecostal church, desiring rightfully that fullness of God’s Holy Spirit upon my life, I spent many a night in what they called tarrying meetings, as I was tarrying for what they called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Now, in those churches where I grew up, there were oftentimes what they called testimony meetings. And quite often in the evening, "Anybody have a testimony tonight for the Lord?" And usually there was a certain portion of the meetings set aside for these personal testimonials, and people would get up and testify of God’s goodness and God’s grace and God’s blessings and of problems, many times and all.

내가 오순절 교회에서 자랄때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했으며 성령침례라고 불리우는 것을 받으려고 늦게 모이는 모임에서 밤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자랐던 교회에서는 그러한 모임을 번번히 간증집회라고 불렀습니다. 저녁에 빈번히 “오늘 저녁 주님을 위해 간증하실 분 계십니까?” 이 모임에서는 개인 간증을 위한 시간을 항상 남겨 둡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축복과 문제점들을 간증합니다.

But much of my theology was formed from these testimony meetings, and that’s why my theology was so mixed up. Because I heard people testify of their

receiving of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and I was longing to receive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And I would hear people say things like, "When I finally took out my cigarettes and laid them down and said, 'God, I'll never smoke again,' then God baptized me with the Holy Spirit." Well, unfortunately, I didn't smoke, or fortunately, so I couldn't lay my cigarettes down.

그러나 이러한 간증 집회로 부터 많은 나의 신학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나의 신학은 대단히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성령 침례 받은 것을 간증하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성령 침례 받기를 아주 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담배를 꺼내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다시는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침례를 주셨습니다." 불행히도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다행히도 담배를 꺼내어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And there was, though not perhaps declared, there was the subtle innuendo that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somehow came as a reward when you reached a certain degree of consecration or holiness. So that I was actually seeking to receive the Spirit by the works of the law, by keeping the rules, because I had to sign every year a pledge: I won't go to shows, I won't go to dances, I won't smoke, I won't drink, and these. And I would sign the pledge every year. And every year after I'd signed the pledge, I'd immediately try and receive the Holy Spirit 'cause I just signed the pledge. "Lord, look, I'm going to be good." And I wrestled with this, because I could not understand why I tarried so many years and God never filled me with the Spirit.

비록 선언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의 헌신과 거룩함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상급으로 성령 침례를 받게된다는 암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실제로 율법과 규칙을 지킴으로써 성령받기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서약에 서명을 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서약은: 구경을 가지 않고, 춤추러 가지않으며,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마신 다거나 그런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서약을 매년 서명하며 서명한 후에는 내가 서약에 서명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려고 당장 시도합니다. "하나님, 날 좀 보세요. 이제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으로 씨름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많은 세월을 기다렸는데도 왜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채워 주시지 않는지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When I finally received that empowering of the Spirit in my life was when, by faith, one day I just said, "Well, Lord, I'm going to receive it." And I had set aside my concept of my righteousness or my holiness because I didn't smoke and drink. Because I had a real problem, because a friend of mine who did smoke received, and I didn't think God was quite fair. I knew I was far more righteous than he was. And so, when I, by faith...and when I received that empowering of the Spirit, I did so by faith.

드디어 어느날 내가 믿음으로 나의 삶에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을 받겠습니다.” 나는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의로움이나 거룩함에 대한 개념을 다 제쳐 놓았습니다. 내 친구 중의 한사람은 담배를 피웠는데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문제는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 친구보다 훨씬 더 의롭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Paul’s question,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by the hearing of faith, or by the works of the law?” The answer is obviously: you received the Holy Spirit by faith; it’s God’s gift. You can’t deserve it. You can’t be worthy of it. And that was the whole context behind the tarrying; it was a cleansing process where you’ll become worthy. My body worthy to be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Never, no way. I received the Spirit by the hearing of faith.

바울이 질문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듣고 믿음으로냐?” 대답은 명백하게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의 배후의 모든 내용은 여러분이 가치 있게 될때까지의 과정은 정화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성령의 전이 될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듣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Now the next question: “Foolish Galatians, having begun in the Spirit.” That’s where you start with...you started out in the Spirit, now are you going to be made perfect in your flesh? Are you going to improve upon God’s work in your life? And how many times we’re trying to improve on our righteousness by works, by obedience, by promising to God, making covenants with God. Promising, "Now, God, I promise this next week I am going to faithfully pray one hour everyday. I promise You, Lord, I’m going to. Now, Lord, on the basis of that promise, I want You to bless me. You know, because after all, I’m going to be so righteous by the end of the week having prayed an hour every day." And having begun in the Spirit, we so often are seeking to be made perfect in the flesh, by our fleshly efforts. Paul is rebuking the Galatians for this false concept.

이제 다음질문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그것이 여러분이 시작한 곳이며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던 것을 이제 육체로 마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개선하려고 노력합니까? 우리의 선행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에게 약속함으로 언약을 맺어 우리의 의를 개선하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것을 약속합니다. 다음 주에는 매일 한 시간씩 성실하게 기도 하겠습니다. 약속 합니다, 주님. 제가 할 겁니다. 이제, 주님, 이 약속을 기초로 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다 시피, 주말쯤 이면 제가 매일 한 시간씩 기도를 함으로 제가 매우 의로워 질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 하였다가 빈번히 육체적인 노력으로 완성하기를 추구합니다. 바울은 이 잘못된 개념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을 꾸중 합니다.

Have ye suffered [he said] so many things in vain? if it be yet in vain. He therefore that ministereth to you the Spirit, and worketh miracles among you, doeth he it by the works of the law, or by the hearing of faith? (3:4-5)

Again, this creates some problems many times, because there are those that are going around with what they call miracle ministries. And you know, they advertise, "Come and see miracles." And, "Miracles every Monday night," you know. As though God were limited to, you know, "Why, I came Sunday night." "No, no, no, this isn't miracle night yet, come back tomorrow night for the miracles."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듣고 믿음에서냐?”(3:4-5)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목회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이리 저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광고하기를 “와서 기적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매주 월요일 밤엔 기적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왜, 난 주일 저녁에 왔어.” “아니요, 아냐, 이 날은 기적의 밤이 아닙니다. 내일 저녁 기적의 밤에 다시 오십시오.”

Now it has created a problem, because many of these miracle evangelists have deep personal problems. Yet they stand up before a great number of people, and there seems to be miracles wrought through their ministry. There was a fellow, A.A. Allen. He even opened Miracle Valley Ranch in Arizona. A.A. Allen was an alcoholic. He died of acute alcoholism in San Francisco. And yet, he'd get up before the people, and there were miracles that people would testify to as the result of his prayers and the result of his services. Now, you see, that seems totally inconsistent to us. A person to have that kind of power with God, surely you would think he lived a very dedicated, consecrated, holy, righteous life. That this was God's attestation to the person's holiness or righteousness. Not so.

그것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이 많은 기적의 전도자 들이 깊은 개인 문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며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에이 에이 알렌 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리조나에 기적의 골짜기라는 목장까지 냈습니다. 그는 샌 프란시스코에서 죽었는데 급성알코홀 중독증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 앞에 일어섰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간증할 만한 기적들이 일어났으며 그것은 기도의 결과요 또한 그의 집회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건 전혀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이 대단히 헌신적이며 성결하며 거룩하며 의로운 삶을 살았을 것 이라고 생각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 곧 사람들에게 거룩함, 또는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Those that worked miracles do not do it on the basis of their righteousness, and this stumbles a lot of people when they get close to some of these persons that are going around in these miracle meetings, to see the inconsistency of their walk. Stumbles many people, because somehow, we think that this is related to holiness and to righteousness and to the obedience of a fine line of commitment to God.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들도 그들의 의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기적의 모임을 두루 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할 때, 그들의 행함의 모순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이것이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특별한 순종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You see, God does not reward us for our works, for our efforts, for our goodness. Whatever God gives to me, He gives to me on the basis of my believing in His grace. And these men have learned to believe in the grace of God. Not really looking at their own selves, weaknesses, failures or whatever, and they have learned how to inspire people to look to God through faith. And God honors the faith of the people who have come to receive from God.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함으로 인하여 상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던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에 기초를 두고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 자신이나 약점이나 실수한 점과 같은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도록 영감을 ○부러 넣어 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부터 믿음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Any work that God has done in my life comes to me by believing, faith in Jesus Christ and in the grace of God. Now, when you can really assimilate that truth, then you can start to expect God to bless you, though you know that you don't deserve the blessings, because I'm not coming on what I deserve. If I got what I deserved, man, I'd be frying by now. He has not rewarded us according to our iniquities, but "as high as the heaven is above the earth, so high is God's mercy towards them that fear Him" (Psalm 103:11).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떠한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그 진리를 정말로 이해하였을 때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알찌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가 온 것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다면 지금 쫓엔 안전하게 튀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한 행위대로 상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다.”(시편 103:11)

So I stand in the grace of God. I walk in the grace of God. Now, does that mean then that I can just go out, and you know, live any kind of an old lascivious life? No, no, no, no, no. The love of Christ constrains me to walk a life that is pleasing, and when I use that as the criteria for my activities, I find that I live a more strict life than when I try and use right and wrong as the basis for my particular activity. Is this right to do? Is this wrong to do? I so often hear that question. That should not be the consideration. The consideration should always be, "Is this pleasing to God if I do it?"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합니다. 이제, 그 뜻이 내가 그냥 밖에 나가서 어떤 종류의 음란한 생활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하는 삶을 살도록 강권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 활동의 범주로 삼을 때, 특정된 활동을 위한 기초를 세워 옳고 그른것을 시도하고 사용할때 보다 더 엄격한 생활을 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것을 하면 안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생각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마땅히 고려해야 할 것은 항상 “만약 내가 이 일을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까?” 이어야 합니다.

You see, a lot of people say, “Well,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Ooo, but it doesn’t please God. So, as I am living to please God, yet I do not look at myself or my imperfections as the basis for my receiving from God. Or, if I happen to have a good day and have been especially benevolent and have done, you know, some extra good deeds, I don’t look to those as the basis of my receiving from God. I don’t say, "Well, God, did you see that? Did you observe? Lord, didn’t I handle that well? Now don’t you think, Lord, I deserve a little special credit for that one, you know? Can’t You do this for me? Because look what I just did for You." No, God does not reward me for good efforts, or even good performance. God blesses me because He loves me. And He loves for me to just trust in Him. And He loves it when I seek to please Him. But even that is not the basis for what God gives to me. The basis is God’s love and grace for me. He bestows upon me His blessings, His love, as I simply believe in Him to do it and trust Him to do it.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거기에 잘못된것이 없잖아요.” 오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위하여 살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것들은 위한 기초로 나 자신을 보거나 나의 불완전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혹은 내가 좋은 날을 가졌고 특별히 자선 행위와 선행을 더 많이 했다면 나는 그 행한것을 기초로해서 하나님으로 부터 모든것을 받는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저것 보셨습니까? 관찰하셨어요? 주님, 제가 잘 처리하지 않았나요? 주님, 저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점수를 뺏죠? 저를 위해 이것 좀 해주실수 없을까요? 제가 주님을 위해 한것 좀 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훌륭한 노력이나 좋은 성과때문에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할때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기초가 되는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그의 은혜입니다. 내가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할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Now, if you are coming to God on the basis of your righteousness, then you're going to be cut short of what God wants to do in your life. You're going to be robbing yourself of many rich blessings that God wants to bestow. But if you come always on the basis of God's love and grace for you, then you'll never be cut short. As I am believing and trusting God to bless my life, even though I know I do not deserve it.

이제 만약 여러분의 의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온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단축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시는 많은 부요한 축복을 당신 자신이 도적질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초로하여 하나님께 온다면, 그것이 결코 단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축복 해주시는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As Jacob said, “Lord, I am not worthy the least of thy mercies” (Genesis 32:10). It isn't my worthiness that counts. Jacob was a scoundrel, and yet God blessed him abundantly, and he knew it. He was a deceiver. He was a conniver. He was a manipulator. And when he looked at God's blessings, “O Lord, I'm not worthy the least of Your mercies, yet you have blessed me.”

So, he now enters into this principle coming back to Abraham.

Even as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accounted to him for righteousness (3:6).

야곱이 말 했던 것 같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창 32:10). 그것은 나의 가치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속이는 자며 그는 모사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험잡꾼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보았을 때, “오, 주여, 저는 주님의 자비를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부터 시작된 이 원칙으로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3:6).

What? His believing God. Now, it is true that his belief in God was manifested by his obedience to God. It isn't just saying, "Well, I believe in the Lord. I believe in Jesus." It's more than just a verbal assent to the truth. If I indeed believe, my belief will be demonstrated by my actions. If I stood here tonight before you and said, "Friends, I believe there's going to be a violent earthquake in ten minutes that's going to level this building. God's revealed to me that the San Andreas fault line is about ready to, you know, to let go. In fact, in just now, it's actually only nine minutes and forty seconds. This thing is just going to be flattened." And I just went on talking and all, you can say, "He really doesn't believe that." Why? Because my actions are not consistent with what I am saying. You see, if I really believed that, I'd say, "Hey, let's get out of here. You know, get out there under the trees or get out there in the yard, because, you know, these buildings are going to be flat. And go get your kids, get them out of the buildings quick! You know, and let's get moving."

뭐라구요? 그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냥 말로만 “흠, 나는 주님도 믿고 예수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말로만 동의 하는것 이상입니다. 만약 내가 진실로 믿는다면 나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질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 밤에 여기 여러분 앞에 서서 말하기를, “친구들이여, 내가 믿기는 십분 안에 굉장히 심한 지진이 일어나 이 건물을 납작 하게 될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썬안드레아스의 지진대가 곧 시작 될 것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곧, 이제 막 구분 그리고 사십초 남았습니다. 이것이 아주 납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말하기를 “저 사람은 정말 그것을 믿지 않네” 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구요? 내가 말하는 것과 나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만약에 내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말하기를 “여보세요, 여기서 빨리 나가십시오. 저 나무 밑이나 마당으로 나가십시오! 이 빌딩이 납작하게 돌거니깐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데리러 빨리 이 빌딩에서 나가세요! 자, 움직이세요.”

Now, if a person just says, "Hey, I believe in Jesus. Yeah, I believe." And yet their actions are not in conformity with what they are declaring, then there is a great reason to doubt whether or not they sincerely or really believe it. If I sincerely really believe something, then my actions are going to be conformed with and confirming that which I believe.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보세요,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네, 믿지요.” 그러면서도 아직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선언 한 것과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짓 없이 또는 진실로 믿는지 아니면 안 믿는지를 의심할 큰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을 정말로 진지하게 믿는다면 나의 행동들은 내가 믿는 것과 일치 되며 그럼으로 내가 믿는 것을 확인해 줄것입니다.

So, Abraham's actions confirmed what he believed. His actions were on the basis on what he believed.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the belief that

God accounted for righteousness, not the actions, but the belief that prompted the actions. As James said, "Faith without works is dead" (James 2:26). "You say you believe? Well, you show me your works and I'll show you your faith." In other words, James is pointing out that just verbal assent to truth is not enough. It has to be demonstrated by your action if it is a true faith, if it is a true belief. But God doesn't look to the actions, but He looks to the faith which prompts the actions. With Abraham, it was Abraham's faith that God accounted for righteousness.

Know ye therefore that they which are of faith, the same are the children of Abraham (3:7).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위는 그가 믿는 것을 확증하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가 믿는 것을 기초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은 그의 행위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행위를 촉진합니다. 야고보가 말했듯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26) "혹이 말하기를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다른 말로 하자면,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은 말로만 진리에 찬성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행동으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지 않고 행위를 촉진하는 믿음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줄 알지어다. (3:7)

So, Abraham was the father, not of a physical race, but of a spiritual race. The promises to Abraham were not to the physical seed, but to the spiritual seed. So that Paul will soon point out that we as children of Abraham, who is the father of those that believe, and by your believing, you then become a child of Abraham through faith. And thus, the covenant that God made with Abraham become God's covenant with you, as you become a child of Abraham, the father of those who believe. So, you may be a physical descendant of Abraham, but if you don't believe, you're not really a descendant of Abraham in that spiritual sense.

그래서 아브라함은 혈통을 따라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만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육체적인 자손이 아닌 영적 자손에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만드신 언약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적인 의미에서 볼때, 여러분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And the Scripture, foreseeing that God would justify the heathen [or the Gentiles] through faith, preached before the gospel unto Abraham, saying, In thee shall all nations be blessed. So then they which be of faith are blessed with faithful Abraham (3:8-9).

The promise of God to Abraham, foreseeing that the Gentiles were going to be justified through faith, promised him this blessing of which you become partaker.

Now, those who were ready to go back to the law, those that were ready to look to the law as the basis for a righteous standing before God, Paul said, "Don't you realize that,"

For as many as are of the works of the law are under the curse: for it is written, Cursed is every one that continueth not in all things which are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to do them (3:10).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3:8-9)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을 미리 예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에 참여 하게 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율법을 자신들의 의로움에 기초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 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3:10)

Heavy duty. You want to be made righteous before God by your keeping the law? Then you've got to keep the whole law all the time, and if you ever violate it once in any area, you've had it. You're under the curse. For “cursed is the man that continueth not in the whole law to do all of the things that are written therein.”

무거운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율법 전부를 다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겼다면 여러분은 저주아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 율법 책에 기록 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James said that “if we keep the whole law, and yet violate in one point, we are guilty of all” (James 2:10). Now,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which point

you violated, if you violate any point of the law, you're guilty of the whole. If you want to be righteous before God by your works, then you've got to be perfect. And if you're not perfect, you better listen then to the gospel of grace through faith, because you need it. So this is for imperfect people. The rest of you can go home at that point.

But that no man is justified by the law in the sight of God, it is evident: for [the Bible says],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3:11).

야고보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10). 율법 중에 어떤 것을 어겼다 해도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중에 어떤 것이든 그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싶으시면 여러분은 완전해야 합니다. 만약에 완전치 못할 때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한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 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불완전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시점에서 집에 가서도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3:11)

This scripture was given by God to the troubled prophet Habakkuk who was complaining to God at a time of national declension. The nation was going downhill fast. All kinds of corruption in government. And Habakkuk saw the corruption that was there. He has insight into the problem and he said, "God, please do me a favor. Don't let me see anything else; I can't take it. The whole system is going down the tubes and you're not doing a thing about it." God said, "Habakkuk, I am doing a work, and if I told you what I was doing, you wouldn't believe me." So Habakkuk said, "Well, try me." And God said, "I am preparing Babylon, and I am going to bring Babylon as my instrument to judge these people for their iniquity." "Wait a minute, Lord, that isn't fair. We're bad, yes, but hey, they're horrible. They're much worse than we. Why would you use a nation that is even more evil to punish us?" God said, "I told you you wouldn't believe it." So Habakkuk said, "Well, Lord, I don't know what to do. I'm just going to go sit in the tower, and I'm just going to wait on You and see what You're going to do."

이 말씀은 나라가 기울어질때 하나님께 불평하며 괴로워하는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나라는 매우 빨리 쇠퇴해 가고 있었습니다. 정부에는 여러 가지의 부정 부패가 있었고 하박국은 거기서 모든 부패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통찰력 있게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나의 부탁을 들어 주십시오. 내가 이 이상 더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참을수가 없습니다. 모든 제도는 부패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박국, 내가 일을 하고 있단다. 만약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네게 말하면 네가 믿지 않을 것이야.” 그래서 하박국이 말하기를, “저를 시험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하시기를,

“나는 바벨론을 준비하고 있단다. 그들의 패역함을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나의 도구로 쓰기 위해 불러올것이다.” “잠깐만요, 주님, 그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나쁜긴 하지만 그들은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 훨씬 더 악한 민족을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았나. 네가 그걸 믿지 않을 것 이라고.” 그래서 하박국이 말하기를, “그럼, 주여,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탑에 올라가 그냥 앉아 있으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겠습니다.”

So, he went into the tower to just sit there and wait on God. And while he was sitting there,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Habakkuk the prophet saying, "Habakkuk,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Believe me. Just trust in me. Things are going to get tough, Habakkuk. The nation's going to go into captivity, you know, but believe Me, trust in Me,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그래서 그는 탑 안으로 들어가 그냥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그곳에 앉아 있을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예언은 “하박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믿으라. 그냥 나만 신뢰하여라. 하박국, 모든 일들이 어려워 질것이다. 백성은 포로로 잡혀 갈것이지만 나를 믿고 신뢰하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So, Paul here again quotes this fantastic statement of God: the just, or those that are justified will be justified by faith. That is why the law cannot justify you. It cannot make you righteous.

And the law is not of faith (3:12):

The law is of works. The law says,

but, The man that doeth them shall live in them (3:12).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다시 이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의인, 또는 의롭게 되는자는 믿음으로 의롭게될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여러분을 의롭게 할수없습니다. 율법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3:12)

율법은 행함이라. 율법이 말하기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3:12)

But the law places the emphasis upon the doing, the obedience, where faith places the emphasis upon trusting in God. So then, as many as are under the law are under the curse of the law, unless they keep the entire law. But,

Christ hath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being made a curse for us: for it is written, Cursed is every one that hangeth on a tree (3:13):

율법은 행함과 순종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면 그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3:13).

So Jesus, hanging upon the tree, upon the cross, became a curse for us that He might redeem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Again, here we have a glorious insight into God's grace towards us in Christ. For "though He was rich, yet for your sakes He became poor, that you through His poverty might know the riches of God" (2 Corinthians 8:9). I mean, that's quite a deal. Here He was so rich, yet for your sake He emptied Himself. He became poor, that through His poverty you might know the riches of God's love and grace.

그래서 예수께서 나무, 즉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대속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또 한번 여기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광스러운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 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심이니라."(고린도후서 8:9) 우리에게 그건 굉장한 수치많은 일이란 말입니다. 여기 그는 매우 부유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비웠습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었고 그의 가난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심이었습니다.

"For God made Him to be sin for us, who knew no sin" (2 Corinthians 5:21). Many times when we go down to baptize in the ocean, the water is rather cold. And when people are immersed in that cold water, sometimes it sort of takes their breath away. And as they come up, you can see them sort of gasping because of the coldness, you know, just haah, you know, trying to catch composure again. It's a shock when your body is warm to suddenly be immersed in cold water. It's a shock to your body.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고린도후서 5:21). 여러 번 세례식 하려고 바닷가로 내려갈 때 물이 좀 차갑습니다. 그 찬물에 사람들이 들어갈 때면 어떤 때에는 그 차가움이 그들의 숨을 잠시 앓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곤 그들이 물에서 나오면 그들이 추워서 숨을 가쁘게 쉬는 것 같은 것을 여러분은 볼 것입니다. 이건 평정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의 몸이 따뜻할 때 차가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마비된 것 같아 지지요. 이건 여러분의 몸에 충격입니다.

I wonder what kind of a shock it must have been to Jesus who was so pure, so totally pure, to all of a sudden have dumped on Him the sins of the world. Every rotten, evil thing that has ever been committed by man. Every perverted thing ever committed by man dumped on Him. What a shock that must have been. But yet, “God made Him to be sin for us, who knew no sin; that we might be made the righteousness of God through Him” (2 Corinthians 5:21). So, He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because He became a curse for us through hanging there on the cross.

나는 정결하고 온전히 깨끗하신 예수님에게 갑자기 세상의 모든 죄를 쏟아 부었을 때 어떠한 충격을 받으셨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 죄는 사람들이 범한 세상의 모든 부패하고 악한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범한 악한 죄를 그에게 다 쏟아 버렸습니다. 그 충격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린도후서 5:21). 그래서 그가 그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던 것입니다.

That the blessing of Abraham might come on the Gentiles through Jesus Christ; that we might receive the promise of the Spirit through faith (3:14).

So Jesus came to redeem, taking our curse. But again, that's negative. Positive: that you might receive the blessings that God promised to Abraham, the promise of the Spirit through faith.

Brethren, I speak after the manner of men; Though it be but man's covenant, yet if it be confirmed, no man [can] disannulleth [it], or addeth thereto [to it] (3:15).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3:14)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으나 그것은 소극적인 면에서 그러합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축복으로 믿음을 통하여 받는 성령의 약속을 여러분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3:15).

Now, God made the covenant with Abraham, a blessing. “In blessing I will bless thee” (Genesis 22:17). God made the promise of His blessing upon Abraham's children. You are the children of Abraham through faith, for he is the father of those that believe. And so, God's promises to you are, “In blessing I

will bless you and multiply you.” God’s promised His blessing upon you through faith. Jesus opened the door that you might receive these blessings that God promised upon Abraham. And by your faith in Jesus Christ, you enter into this covenant.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창세기 22:17).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자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라고 약속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도록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언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Now, a covenant, though God made it with man, once God confirmed that covenant, no man can take away from that covenant or no man can add to that covenant. And so,

Now to Abraham and to his seed were the promises made. He saith not, And to seeds, as of many; but as of one, And to thy seed, which is Christ (3:16).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신 언약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한번 확정하시면 어떠한 사람도 이 언약으로부터 뺄 수도 더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3.:16)

And so when God said, "And through thy seed all of the nations of the earth will be blessed," He wasn't saying that the world is going to be blessed through the Jewish nation. He was saying the world would be blessed through Jesus Christ. Thy seed, singular. It was a reference to Jesus Christ and the work of redemption that He would accomplish for man, through which the blessings of God might come upon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And the Jews so often misinterpret that promise to Abraham thinking that they are to be the benefactors of the blessings to the world. Not so. It is through the seed, singular, Jesus Christ, that these blessings were to come to the Gentiles and to all the world.

그래서 하나님께서 “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이 유대민족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가 말씀 하셨던 것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씨는 단수입니다. 그것은 예수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가 인간을 위해 이루실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천하 만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주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잘못 해석하여 세상이 받을 축복의 수혜자가 유대 백성 자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씨를 통하여, 홀로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과 온 세상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And this I say (3:17),

Remember, if God has made a covenant, no one can add to it or take away from it. “And this I say,”

that the covenant, that was confirmed before of God in Christ, the law, which was four hundred and thirty years later, cannot disannul, that it should make the promise of none effect (3:17).

그리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3:17),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언약 하셨다면 그 아무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 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3:17).

So, the law came along and pronounced upon man a curse. “Cursed is everyone that continues not in the whole law to do all that is written therein.” The law came along and condemned man to death. But God has promised the blessing. And “in blessing I will bless thee.” And His blessing upon Abraham’s seed, those who would believe. That is, upon his descendants, or those that would follow him in faith. So the law cannot really take away those blessings that God has promised to you, or your failure and obedience to the law cannot destroy or disannul the covenant that God made to bless you.

그래서 율법이 와서 사람에게 저주를 선고 하였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이 와서 사람을 죽음으로 정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리라” 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씨 즉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나 믿음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또는 율법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주신다는 그 언약을 파괴하거나 취소하지도 못합니다.

Now God help us to see this, because it’s going to cause your life to become so rich and filled with God’s blessing you won’t be able to handle it. My life has become so blessed of God, having been brought by the Spirit to the

understanding of the basis of God's blessings upon me are all in God, in His grace, in His love for me, and are not dependent upon my works. But they are just predicated upon: God has made a covenant to bless me. God confirmed that covenant, and the law cannot disannul it. My failure cannot disannul it. As I believe in Jesus Christ, I become a son of Abraham through faith, and thus, this covenant that God made with Abraham's children becomes God's covenant with me, and God's covenant was that of total blessings.

하나님과 의 언약이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생활을 부요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도록 하는 원인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 부터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 하나님안에 있는 것이며 그의 은혜 가운데 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이지 나의 선행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초를 이해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다고 언약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확증 하셨고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취소할수 없습니다. 나의 실수가 언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때 음으로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신 언약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축복의 언약 이었습니다.

Now, the law can't take that away from me. Though the law was added four hundred and thirty years later, once the covenant is confirmed, it cannot be added to or disannulled. It cannot disannul God's covenant of blessing with me because I have failed to keep that law.

Wherefore then serveth the law? (3:19)

이제, 율법이 그 축복을 내게서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율법이 사백삼십 년 후에 더해 졌지만 한번 그 언약이 확증되면 거기에 더하거나 취소 할수없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데 실수 했다고 해서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즉 율법이 무엇이냐?(3:19)

And, of course, it's the opposite. Then why did God give the law? If the inheritance is of the law, it is no more of promise. But God gave it to Abraham by promise. Then why did God give the law?

It was added because of transgressions, till the seed should come to whom the promise was made; and it was ordained by angels in the hand of a mediator (3:19).

그리고 물론, 그것은 그 반대이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만약 유업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다면 그건 더 이상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3:19)

So, the law served because of man's transgressions, to show man his guilt and his need of a Savior.

Now a mediator is not a mediator of one, but God is one (3:20).

It takes two to have a mediation. Takes two to tango. Two to have a fight. Takes two to have a mediation. Then, so Christ is become th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Is the law then against the promises of God? [No] God forbid: for if there had been a law given which could have given life, verily righteousness should have been by the law. But the Scripture hath concluded all under sin, that the promise by faith of Jesus Christ might be given to them that believe. But before faith came, we were kept under the law, shut up unto the faith (3:21-23)

그래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율법이 생겼고 사람에게 그의 가책과 그의 구원자의 필요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게 되었습니다.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3:20).

중재를 하려면 둘이 있어야 합니다. 탕고 춤을 추는데 두 사람이 필요하며 싸우는데도 둘이 있어야 합니다. 중재를 하려면 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3:21-23).

“But before faith came,” rather. Before Jesus Christ came, the relationship to God had to be by the law. That's how man related to God. He had to bring the sacrifice; he had to make the covering for his sin. But once Jesus came, we no longer needed the law.

Wherefore the law was our schoolmaster to bring us unto Christ (3:24),

Or unto the time of the coming of Christ.

that we might be justified by faith (3:24).

“**믿음이 오기 전에**”란 차라리 예수그리스도께서 오시기전 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으로 만 이루어 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희생 제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율법이 더 이상 필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3:24)

또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들 얻게 하려 함이니라(3:24)

The law can only show me how far I have failed to be what God would require me to be. It's the schoolmaster. Man was once under the law unto the time of Christ.

But after that faith is come [Jesus Christ came], we are no longer under a schoolmaster (3:25).

율법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큰 실패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몽학 선생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때까지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3:25).

Paul said Christ is the end of the law to those that believe. That is, the law as the basis for my relationship with God. My relationship with God is no longer based upon my keeping the law. My relationship with God is now based upon my faith in Jesus Christ.

For ye are all the children of God by faith in Christ Jesus. For as many of you as have been baptized into Christ have put on Christ. There is neither Jew nor Greek, there is neither bond nor free, there is neither male nor female: for ye are all one in Christ Jesus. And if ye be Christ's, then are ye Abraham's seed, and heirs according to the promise (3:26-29).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반을 둡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 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3:26-29)

And so, Jesus has become the common denominator among men. So that we all relate to God on an equal basis through Jesus Christ. I have just as ready an access to God through Jesus Christ as does Billy Graham or the Pope or anybody else, because they have to come the same way. I have to come through Jesus Christ an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In fact, sometimes I think I have more access, because I know I have to come through faith, and some of those good people might think that they can come on their own sometimes. But I know I can't.

그리하여 예수께서 사람에게 필요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동등한 기반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나도 빌리 그래함 이나 교황이나 어떤 누구들만큼이나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나갈 수 있는 마련된 통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같은 방법으로 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습니다. 사실 때로는 내가 더 많은 접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내가 믿음을 통해서 와야 하니까요. 종종 선량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올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So you, as a child of Go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have access to God, and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what your background is. For as far as our being in Christ, "there is neither Jew nor Greek, there is neither bond nor free, there is neither male nor female." There is no male superiority. God doesn't listen to men more readily than women. Or, on the other hand, He doesn't listen to women more readily than men. We are all brought to one common denominator in Jesus Christ and we're all one in Him.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안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출처가 어떻든지 그게 별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동안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 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남성 우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여자 보다 더 신속하게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한편,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 보다 더 신속하게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명명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의 안에서 하나입니다.